■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6〉

대의멸친
大 義 滅 親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친한 사람도 없애야 한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즈음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부가 국정(國政)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히 시끄러운 것은 국회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감사하면서 일어났다. 여당의원들은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 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 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다.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야당에서는 이대통령이 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정치의 사법 개입이라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든 정치의 사법 개입이든 결국 사욕을 위하여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느 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건 야건 내 세우는 것은 대의(大義)이고 공정(公正)인데,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여당의 뜻대로 결정되든 야당의 주장대로 결정되든 결정될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욕에 따른 주장이 이긴다면 대의(大義)가 아니다. 사실 당장 사욕이 이겼다 하여도 아직은 더 무서운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다 죽고 난 먼 훗날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는 분명히 대의(大義)가 어느 것인지 판가름 될 것이어서 오늘에 사욕으로 이긴 사람은 민주주의를 망친 역사의 큰 죄인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을사(乙巳) 오적(五賊)처럼 말이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원수같이 싸우는 여야의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사(故事)가 생각났다. 원(元) 순제(順帝) 때의 이야기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원순제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5살에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명종(明宗)이 그의 삼촌 문종(文宗)에게 죽었는데, 문종이 죽으면서 간신히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파연(巴延, 1280~1340)이었다.

파연은 문종 세력을 전부 내쫓고 그 아들도 귀양 보내고 순제를 황제에 올렸으니 순제에게는 대단한 은인이다. 그래서 순제가 등극한 뒤로 황제인 순제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파연의 정치적 업적 또한 대단하였으니 정치적 실권은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파연은 세운 공로만큼만 권력을 행사하였다면 공정하다고 하겠지만 권력이나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서인지 안분(安分)하지 않았다. 자기의 몫에 만족할 줄 모른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이나 출입할 때의 의장(儀仗)은 황제의 의장보다 더 성대하게 하였다. 또 군사 가운데 날래고 강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호위하게 하는 짓을 서슴없이 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하며 5년이 흘렀다. 이를 본 파연의 조카인 탁극탁은 물의(物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 물의가 일어나면 그의 큰 아버지인 파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까지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 아버지에게 '백부(伯父, 파연)가 교만하고 방종한 것이 이미 심한데 만일에 천자가 진노하게 되면 우리 족속은 붉어질 것이니 어찌 아직 패퇴(敗退)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도모하는 것만 같겠습니까!' 족속이 붉어진다는 말은 가족이 전부 도륙된다는 말이고 그의 백부는 패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스스로 도모하자는 말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 말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탁극탁은 다시 그의 스승인 오직방(吳直方)에게 물었더니 오직방은 "전(傳)하는 말에 대의(大義)를 위하여서는 멸친(滅親)한다고 하였다. 대부(大夫)가 과연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려거든 나머지야 다시 어찌 돌아보겠는가!" 오직방은 춘추(春秋)에 나오는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여도 사사로운 것을 고려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大義)를 위하여 가까운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파연은 조카인 탁극탁을 아들로까지 삼았던 처지였다. 보통이면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파연의 양자가 되어 그가 누리던 권력을 계승하여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상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파연과 같이 옳지 않은 짓을 하고서는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황제를 만나서 망가순국(忘家徇國)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집안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다. 대의멸친(大義滅親)을 천명한 것이다.

순제도 이미 나이가 20이 된 상황이니 결단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황제 주변은 거의 전부 파연의 사람들로 메워져 있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황제인 순제가 부릴 수 있었으니 비록 이들의 힘은 미약하였지만, 정당하고 공정함이라는 정신적 무장이 큰 힘이 되었다.

결국 탁극탁은 파연이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황제의 명을 받아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다섯 개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파연의 죄를 조목조목 쓴 조서를 파연이 사냥하는 곳으로 보냈다. 사냥터에서 조서를 받은 파연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래도 자기 세력이 있으니 어찌 되돌려 보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된 연고를 물었다. 하지만 파연의 조카인 탁극탁은 성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성 위에 앉아서 '승상인 파연 한 사람에게만 죄를 주고 나머지는 죄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단번에 파연을 고립시켰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트릴 권력을 행사하였던 파연의 힘없는 추락이었다. 황제인 순제를 옹립한 공로가 있고 그 덕에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안분(安分)할 줄 몰랐던 탓에 비참하게 끝을 맺었다. 역사를 들추어 보면 어디 안분하지 못하여 별안간에 몰락한 사람이 파연뿐이겠는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서 함부로 한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성공한 예는 묘하게도 아주 드물다. 역사의 정의랄까?

이러한 일은 원대(元代)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든지 그러하였다.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짧은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한 나라의 권력을 좌우하던 인물들 가운데 온전하게 그 마지막을 보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살펴보면 알 일이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 가운데도 치욕스런 시기를 겪지 않고 끝을 맺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역사를 보고 안분을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내자불선, 선자불래

(來者不善, 善者不來)

올 래. 놈 자. 아니 불. 착할 선.

오는 사람은 선하지 않고 선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

좋은 뜻을 지닌 사람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가왔다면 그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선자불래 내자불선이라고도 함.

노심초사(勞心焦思)

근심 노(힘쓸 로). 마음 심. 애태울 초. 생각 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마음이 몹시 걱정되어 속이 타는 상태

녹음방초(綠陰芳草)

푸를 녹. 그늘 음. 꽃다울 방. 풀 초.

푸른 나무 그늘과 싱그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 주로 봄과 여름철의 자연의 싱그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함

녹의홍상(綠衣紅裳)

푸를 녹. 옷 의. 붉을 홍. 치마 상.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의미하며 곱게 차려 입은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 한복에서 유래되었으며 연두색 저고리와 다홍치마의 조합이 한국 여성의 고요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나타냄

논공행상(論功行賞)

논할 논. 공 공. 행할 행. 상줄 상.

공로를 다 따져서 알맞은 상을 준다는 뜻으로 세운 공을 평가하고 의논하여 표창을 하거나 상을 줌.

역사적으로 보면 논공행상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군신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신료간에 암투를 싹트게 하며 나중에 가서는 큰 분란을 초래한다.

조선의 이방원의 만. 당나라 이세민의 난이 그 예다.

농단(壟斷)

밭두둑 농. 끊을 단.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 함을 이르는 말

유래: 맹자(孟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누란지위(累卵之危)

여러 누. 알 란. 어조사 지. 위태할 위.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래: 위나라의 범수가 수가의 부하로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가의 미움을 사서 죽을 처지에 있었다. 범수는 옥에 갇히었으나 간신히 탈옥에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 위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진(秦)나라 사신 왕계의 도움을 받아 장록(張祿)이란 이름으로 진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었다.

왕계는 진나라 왕에게 "위나라의 장록 선생은 천하에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는 지금 진나라의 정세가 달걀을 쌓아 놓은 것보다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자기를 맏아들인다면 진나라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범수는 진나라 왕에게 대외정책을 진언하는 등 크게 활약하고 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추밀공파 3파 회장단 확대회의 개최

추밀공파종회는 10월 1일(수) 11시 안동권씨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오돈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회관건립 추진위원장,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순용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 시조 및 추밀공에 대한 망배, 회장 인사, 부의 안건,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3파 회장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권경일 처장은 경과보고에서 권율부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대종회와 추밀공파종회가 협력하여 권율장군을 상징할만한 기념비를 헌정했다. 제작 비용은 권영선 고문 770만원, 대종회 50만원, 추밀공파종회 40만원을 각각 기증받았으며 7월 31일 이명철 제60 사단장과 권율부대 예하 장수 문중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8월 26일 거행된 이치대첩제 역시 대종회와 추밀공파종회가 협조하여 추밀공파에서 100만원, 오헌공 종중에서 50만원, 연천군 종중에서 30만원을 기증하여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서울에서 30여명이 참석했고, 이날 행사에 안동권문에서는 전국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추향제 준비사항 보고에서는 8월 파주 단소에 320미리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유실되어 정헌공 권정택 회장과 협의하여 100미리 관을 묻고 레미콘을 타설하여 복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추밀공 추향제를 위해 종보에 광고는 물론 단소 벌초 작업을 완료하였고 민통선 출입허가도 신청하였으며, 추향제 당일 참석자들을 위해 광화문에서 대형버스 2대가 출발한다고 보고했다. 추밀공파종회 회관모금 현황을 종보에 광고했으며 2025년 9월 28일 현재 목표액 69.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年 11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0.1 ~ 10.29
총 납부자 218명

(이름순)

총 7,110,000원 단위:원

권강희(서울 동대문) 30,000	권건식(서울 금천) 30,000	권경진(김해) 30,000	권경태(진천) 30,000	권계술(부산) 30,000
권관승(합천) 30,000	권규홍(보은) 30,000	권근(서울 중랑) 30,000	권기돈(문경) 30,000	권기문(아산) 30,000
권기문(창원) 30,000	권기섭(예천) 30,000	권기순(대구 범물동) 30,000	권기영(밀양) 30,000	권기영(안동) 30,000
권기완(경주) 30,000	권기용(울산) 30,000	권기준(의정부) 30,000	권기진(영주) 30,000	권기현(전주) 30,000
권대경(안동) 30,000	권대윤(서울 마포) 30,000	권대인(안동) 30,000	권덕용(부산) 30,000	권동각(서울 성동) 30,000
권만길(경기 성남) 30,000	권명섭(양평) 30,000	권명수(김포) 30,000	권백현(안동) 30,000	권병남(안양) 30,000
권병성(서울 노원) 30,000	권병열(제천) 30,000	권병우(경남) 30,000	권병진(대전) 30,000	권병천(김포) 30,000
권삼수(경주) 30,000	권상근(대구) 30,000	권상용(목포) 30,000	권상진(경주) 30,000	권상현(광주) 30,000
권석근(합천) 30,000	권석범(군산) 30,000	권석재(산청) 30,000	권선식(익산) 30,000	권선옥(광주) 30,000
권성근(산청) 30,000	권성달(경기도 광주) 30,000	권성오(대구) 30,000	권성오(창원) 30,000	권송열(고성) 30,000
권순덕(진주) 30,000	권순보(안양) 30,000	권순성(서울 동대문) 30,000	권순정(안동) 30,000	권순주(부천) 30,000
권순찬(안동) 30,000	권순천(경기 성남) 30,000	권승주(강릉) 30,000	권승주(홍천) 30,000	권승택(서울 노원) 30,000
권승현(강릉) 30,000	권안나(의정부) 30,000	권영각(경주) 30,000	권영관(서울 금천) 30,000	권영국(서울 송파) 30,000
권영근(안동) 30,000	권영근(양평 양근리) 30,000	권영기(서울 광진) 30,000	권영달(서울 강남) 30,000	권영대(고양) 30,000
권영도(영천) 30,000	권영도(창원) 30,000	권영돌(안동) 30,000	권영동(서울 도봉) 30,000	권영로(연천) 30,000
권영무(경기 안양) 30,000	권영배(대구) 30,000	권영범(예산) 30,000	권영법(안동) 30,000	권영봉(김해) 30,000
권영숙(경주) 60,000	권영시(서울 송파) 30,000	권영식(대구 화랑로) 30,000	권영식(안동 녹전면) 30,000	권영일(영양) 30,000
권영재(포항) 30,000	권영주(안동 운안동) 30,000	권영주(영주) 30,000	권영준(상주) 30,000	권영준(서울 관악) 30,000
권영진(서울 동대문) 30,000	권영철(서울 송파) 30,000	권영탁(안동) 30,000	권영태(김해) 30,000	권영하(밀양) 30,000
권영호(상주) 30,000	권영호(안동 단원로) 30,000	권영화(안동 법흥동) 30,000	권오갑(대구) 30,000	권오경(영양) 30,000
권오구(안동) 30,000	권오규(안동 일직면) 30,000	권오길(서울 노원) 30,000	권오룡(서천) 30,000	권오만(경기 광명) 30,000
권오선(칠곡) 30,000	권오섭(영주) 30,000	권오성(서울 강서) 30,000	권오성(예천) 30,000	권오수(대구) 30,000

권오순(영양) 30,000	권오신(안동) 30,000	권오엽(영주) 30,000	권오영(강릉) 30,000	권오영(예천) 30,000
권오용(안동 도산면) 30,000	권오익(안산) 30,000	권오인(철원) 30,000	권오인(충주) 30,000	권오준(경기 용인) 30,000
권오준(서울 노원) 30,000	권오준(서천) 30,000	권오중(경주) 30,000	권오진(안동) 30,000	권오진(진주) 30,000
권오진(홍성) 30,000	권오집(강릉) 30,000	권오철(경주) 30,000	권오철(부천) 30,000	권오춘(충주) 30,000
권오한(제주) 30,000	권오혁(김포) 30,000	권오현(서울 강남) 30,000	권오현(서울 동작) 30,000	권오호(안동) 30,000
권오훈(대구 달성군) 30,000	권용구(안동) 30,000	권용석(경기 광주) 30,000	권용식(경주) 30,000	권용조(김해) 30,000
권용택(평창) 30,000	권우석(평택) 30,000	권원탄(안동) 30,000	권유선(경기 용인) 30,000	권윤대(안동) 30,000
권윤동(강릉) 30,000	권이현(익산) 30,000	권익현(부안) 30,000	권장환(경주) 30,000	권재규(예천) 30,000
권재목(부산) 30,000	권재시(산청) 30,000	권재웅(안동) 30,000	권재익(용인) 30,000	권재혁(서울 동대문) 30,000
권재호(산청) 30,000	권재희(서울 노원) 30,000	권정각(안동) 30,000	권정길(봉화) 30,000	권정대(대구 동구) 30,000
권정안(세종) 30,000	권정휘(영주) 30,000	권종구(대구) 30,000	권종만(파주) 30,000	권종훈(서울 은평) 30,000
권준화(대구) 30,000	권중국(예천) 30,000	권중기(대구 침산동) 30,000	권중길(서울 구로) 30,000	권중덕(안동) 30,000
권진남(이천) 30,000	권진혁(제천) 30,000	권진현(대구) 30,000	권찬기(칠곡) 30,000	권창봉(서울 구로) 30,000
권창순(경기 양평) 30,000	권창원(용인) 30,000	권철진(포항) 30,000	권춘기(구미) 30,000	권칠수(대구) 30,000
권태관(경기 여주) 30,000	권태근(수원) 30,000	권태문(안동) 30,000	권태석(경주 동성로)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태유(대구) 30,000	권태일(안산) 30,000	권태진(강릉) 30,000	권태휴(상주) 30,000	권택문(예천) 30,000
권택영(경기 하남) 30,000	권택전(경주) 30,000	권택주(청주) 30,000	권풍인(문경) 100,000	권헌도(안동) 30,000
권헌정(봉화) 30,000	권혁개(포항) 30,000	권혁구(대전) 30,000	권혁기(안동) 30,000	권혁길(김포) 30,000
권혁성(청양) 30,000	권혁성(포항) 30,000	권혁수(정읍) 30,000	권혁주(서울 도봉) 30,000	권혁준(대구) 30,000
권혁채(용인) 30,000	권혁철(안동) 30,000	권혁태(영주) 30,000	권혁필(대구) 30,000	권현수(서울 강북) 30,000
권현호(진주) 30,000	권형선(인천) 30,000	권형수(안산) 30,000	권호익(서울 송파) 30,000	권후식(화성) 30,000
권후중(제천) 30,000	권희중(경기 성남) 30,000	추밀공파 정승공계 오헌공종중 50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